

어르신·어린이 복지 '앞장'

고창군종합복지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 이하 복지관)이 지역 어르신·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나섰다. 복지관은 3월 25일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253명의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사업단의 명예와 책임을 다짐하는 선서 결의에 이어 일자리 사업안내 및 소양교육(노년기자화참여의 의의 및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자세)을 받았다. 무공 관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여생을 보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앞으로 일자리사업 확대 및 사업유형을 통해 일자리의 양적 증대와 질적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3일 복지관은 고창읍 내에서 지역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1회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폭력 없는 학교,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학교폭력 실태를 설명하고 학교폭력근절을 다짐하는 서명운동과 학교폭력예방 안내서 및 홍보물품, 학교폭력 예방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무공 관장은 "학생의 감정과 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초·중·고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갖게 된다"며 "이들 사전에 예방하는 캠페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석전 정호 대종사 열반 60주년

선운사 석전 스님 생가 복원·조사전 기공



고창 선운사는 3월 25일 조사전 기공식을 거행했다.

한국불교 초대교정을 역임한 근대 불교교육의 선구자 석전 정호 대종사 열반 60주년을 맞아 고창 선운사에서 기념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3월 25일, 석전 정호 대종사 60주기 추모제와 조사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문종원로인 군산 관음사 재근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회위원장 보선 스님,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광복 해남 성우 스님 등 교계원로스님과 선운사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만 스님은 "석전 스님은 불교진흥·교유, 국가의 독립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늦었지만 문종들이 스님의 업적을 선양·계승하기 위해 스님의 행장·자료를 정리해 자료집을 봉헌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는 석전 정호 대종사 열반 60주기 행사를 시점으로 3년에 걸쳐 학술세미나 개최, 독립유공자 지정 신청, 저술서적의 출간 및 한글화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백파사상연구소 설립하고 석전 스님의 생가 복원과 석전기념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같은 날 조사전 건립 기공식도 봉행했다. 5억원 예산을 들여 정면 3칸, 측면 2칸 17평 규모로 건립될 조사전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영정과 유물, 유품 등을 봉안하기 위한 공간이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 나한전 영자전 기록에 의하면 경희 33년(1694년) 무렵까지 법당 3칸 진영 7위가 열좌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었다"며 "소실된 것을 이번에 복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보고가 맺은 인연 잇기를...

한·중·일 후에 신홍사서 자매결연

해상왕 장보고가 활약했던 한·중·일 3국의 후예들이 1200여년 만에 다시 만나 교류를 다짐했다. 장보고의 활동거점이었던 완도 신홍사(주지 법일)는 3월 22일 '장보고 범종 타종식 및 한·중·일 장보고 3국 사찰 자매결연식'을 봉행하고, 장보고 대사의 정신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과 인적교류의 장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장보고 대사에 대한 역사·문화적 조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장보고 범종은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유훈을 기리고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염원하는 범종"이라며 "특히 신라와 당, 일본과의 문화교류와 동북아 삼국의 평화를 견인했던 대사의 정신을 되살려서, 삼국간의 상호교류와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3월 22일 열린 '한·중·일 장보고 3국 사찰 자매결연식'.

중국 법화원 주지 묘해 스님은 자매결연의 말에서 "장보고 대사가 맺어 준 인연을 바탕으로 삼국의 문화교류가 더욱 넓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엔닌 스님의 <인당 구법순례여행기>에는 음력 8월 15일에는 '삼국의 불교대회'와 같은 행사가 펼쳐져 250여명의 스님과 신도가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1200년전 중국 법화원은 문화교류의 중요한 공간이었다"고 밝혔다. 오구치 신도회장은 인사차 주지

스님의 친서 대독을 통해 "장보고 대사의 도움으로 당나라 유학공부를 마친 엔닌 스님은 일본에서 수행하며 670여 사찰을 창건했다"며 "대사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감사하고 한중일 삼국의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前 국무총리는 "강연차 완도에 왔다가 우연히 참석하게 됐다"며 "동북아 평화가 중요한 지금 삼국의 사찰이 자매결연을 맺고, 평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축사했다. 이날 첫 종소리를 울린 장보고 범종은 높이 18m, 둘레 15m, 무게 4톤 규모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포교사단 봉사 나서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자원봉사팀(팀장 장승기)은 3월 21일 영광군장애인종합복지관(회장 권봉식)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포교사 10여 명이 참석해 건물내부와 운동기구, 화장실 등을 청소하고 장애우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광주전남지역단은 2개의 자원봉사팀에 22명의 회원이 동참해 운영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니존사

"문화세대 포교 위해 봉사에 눈돌려야"

백양산 백양사는 예로부터 대한팔경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흰 백학봉을 배경삼아 쌍계루에 비치는 붉게 물들린 얘기단풍의 그 아름다움은 수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낸다. 특히 이곳은 조계종 5대 총림 중 하나인 고불총림이다. 벗꽃이 몽우려져 있는 입구의 숲길을 따라 종무소에 들렀다. 그곳에는 백양사의 살림살이와 행사를 도맡아 하는 이가 있었다. 김문정(법명 慈明) 종무실장이다. 김 종무실장은 항상 정장차림으로 지낸다. 사찰 일반 사찰 사무원의 모습은 아닌 듯한 그의 복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늘 관공서일과 사찰을 찾은 손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따라서 유년시절부터 부처님오신날이면 사찰을 찾았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불교학생회에 가입했고, 고등부와 더불어, 청년회 활동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김문정 종무실장의 신행생활을 승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등진출가이다. 어려서 부모님 따라 집에 다니는 것은 빼고라도 중학교 때 불교에 귀의해 부처님 법 공부를 시작했다. 30년 가까이 불교신행을 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구참이다. 또한 80년대

활발했던 불교학생회를 통해 배출했던 정구코스(가)를 밟은 불교계가 만든 인재이다. 청년회 후 그는 대기업 홍보실에서 10여 년 간 근무를 했다. IMF때 기업 부도로 일자리를 잃은 김 종무실장은 새로운 일을 모색하던 중 백양산 종무실장으로 불교 포교 일선에 나서게 됐다. 김 종무실장의 이름 또한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니 인연은 인연이다. 그런 그에게 백양산 종무소에 담긴 첫 번째의 소명은 바로 포교였다. 실제로 백양사는 소속신도가 거의 없는 큰사찰이다. 김 종무실장은 "여러 통계자료를 보면 불교신도가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로 되고 있다. 그러나 사찰에서 직접 느끼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이웃 종교와 비교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도임을 누구든지 안다. 포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문정 종무실장은 "신도들의 체계적 교육과 더불어 신행활동을 병행해야 된다"며 "단순한 신행생활보다는 사회복지나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찰과 종단에서는 봉사와 사회복지에 불교적 마인드를 심어준다"고 강조했다. 불교적 마인드가 충분히 가미된 사회봉사와

백양산 종무실 김문정 실장



복지를 뜻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록위주의 기도로는 문화세대라 불리는 30~40대층을 불교가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사찰의 부족한 살림으로 필요한 종무원을 고용시키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는 혼자 많은 일을 다방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일수라고 한다. 포교에 남다른 욕심을 갖고 있는 김 종무실장에게 그것은 큰 아픔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큰 즐거움이 있다. 세상 누구보다 큰 부처님 부처님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남들은 전쟁터라 불리는 도심 속으로 간다지만, 그는 부처님에게 '수행'하려 간다. 김문정 종무실장이 즐겨워하는 이유이다. "처음에 비해 비록 천천히지만 백양산 종무행정이 체계적이고, 전산화 돼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천팔십명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범륜대 탄생"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범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환국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범륜대 범당탑자에 봉안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경제지킴이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특별혜택: 1.99.9% 순금개금불사비 95만원만 지불하시고 잔액 155만원은 정월, 4월, 7월,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
- 2.사암연합회 및 개인 예약방문스님에게 특별한 선물 증정.
- 3.범륜대 안에 보일듯 말듯한 부처님의 미소가 뚜렷히 보이면 소원 성취 된다고 알려지는 권선문을 드립니다.
- 주문수량의 한계로 35분한정으로 1치분을 마감합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회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범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범륜대입니다.

사중살림 성장의 기폭제를 위한 발원으로 태어난 작품이 오는
4월 3일 ~ 4월 5일까지 2009년
한국 불교 박람회(대구 엑스코)에 전시 됩니다.

동화사 경내에 개신교 시설

'...방문처' 측과 법적 분쟁 들어가

전통사찰 경내에 개신교 집단 시설이 들어서 수행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 별양면 대룡리 소재 동화사(주지 진성)는 사찰인근에 '기독교 신념을 같이한 지인들의 방문처(이하 전원주택)'로 칭하는 5개동 30여 가구들과 분쟁중이다. 진성 스님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5개동 건물이 들

어서면서도 사찰과 혐의도 없이 관청 허가도 건립됐다"며 "이 시설들이 사찰 경내지를 무단 사용하며, 잦은 출입으로 동화사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한탄했다. 현재 동화사측과 전원주택 분쟁을 확인하기 위해 3월 9일 법원 관계자가 양측의견을 경청했고, 토지와 도로에 대한 경계선 측량 확인이 잇따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분쟁은 2004년, 순천시 별양면에 있는 동화사 위쪽 개운산 기슭에 모단체가 30여 세대 규모의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촉발됐다. 동화사측은 "전원주택측이 사찰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일부가 사찰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동화사측은 법원에 '토지인도청구'와 '측량감정'을 신청했다. 옛 지적도의 오류로 '측량불가' 판정을 받아 '지적도 정정'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또한 토지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해서는 '건물 및 토지 인도에 대한 소송'도 계류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